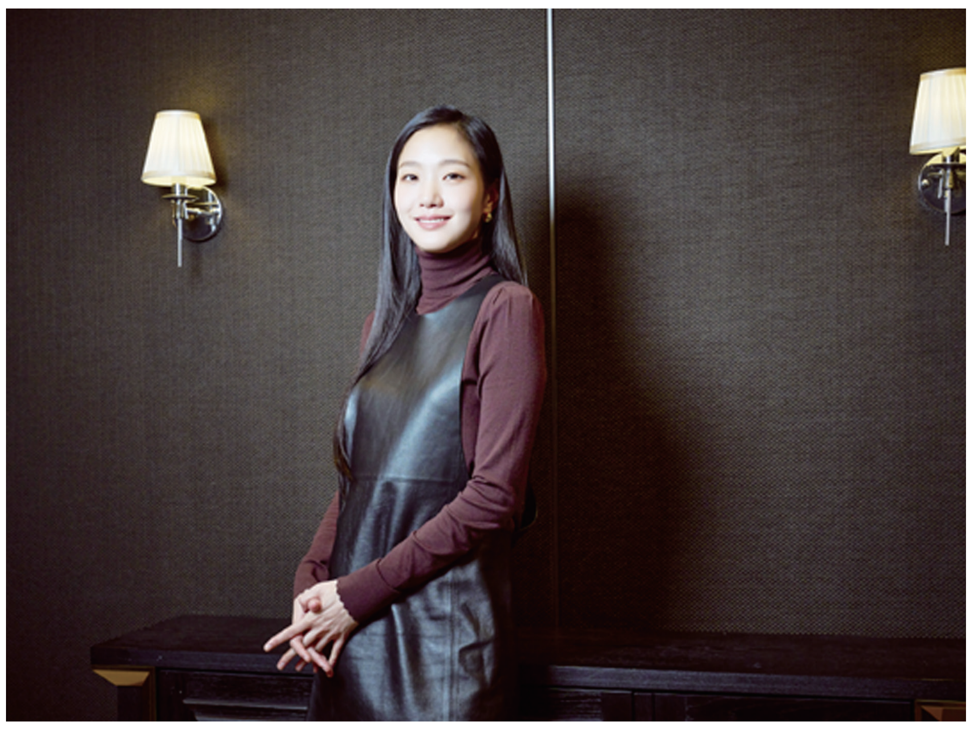
배우 김고은 “전 다 잘할 수 있어요, 맡겨주세요”

영화 ‘영웅’ 독립군 정보원 ‘설희’ 연기해
데뷔 후 처음 뮤지컬 영화에 도전 나서
“매번 도전 반복 두려워도 이길 수 있어”



“도전은 두려워도 결국에는 해낼 수 있어요.”

배우 김고은(31)은 “매 작품이 도전의 반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연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인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김고은에게 새 영화 ‘영웅’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국내에서 잘 시도되지 않는 뮤지컬 영화이고, 비중 높은 역할을 맡아 연기 뿐만 아니라 함께 소화해야 할 노래도 많았다. 김고은이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가진 배우라는 건 업계에 잘 알려진 얘기다. 하지만 그걸 연기로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오는 21일 ‘영웅’ 개봉을 앞두고 만난 김고은은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것과 노래를 부르면서 연기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었다”며 “이 작품에서 부른 모든 노래가 어려웠다”고 했다.

김고은은 안중근 의사(義士)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에서 독립군 정보원 ‘설희’를 연기했다. 가상 인물인 설희는 명성황후의 궁녀로 명성황후가 일제의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뒤 복수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는 인물이다. 게이샤가 된 설희는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를 얻어 정보를 빼내 독립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설정이 극적인만큼 설희에겐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여’ ‘그대 향한 나의 꿈’ ‘내 마음 왜 이럴까’ 등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노래들이 많다. 게다가 연출을 맡은 윤제균 감독은 출연 배우들에게 많은 대목에서 라이브를 요구했다.

“시간만 있으면 노래 연습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짬이 조금만 나면 근처에 있는 연습실로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적게는 2시간씩, 많게는 반나절 내내 연습했어요.” 연습할 때 부르는 노래와 실제 연기할 때 부르는 노래 역시 달랐다고 했다. 김고은은 첫 촬영날 일부러 모든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다. 감정이 많이 실리다 보니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 날 모든 스태프 앞에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더 이상 창피할 게 없었어요.(웃음)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대신에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어요.”

김고은은 가장 힘들게 연기했던 장면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여’를 부르는 장면을 꼽았다. 감정이 가장 강하게 터져 나오는 대목이기도 했고, 노래 자체도 어려웠다. 노래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직전에 중간음 정도로 이어지는 부분을 노래하는 게 쉽지 않았다. “연습실에서 저를 가장 많이 울린 노래였어요. 촬영도 당연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연습하고 공들여서 찍은 장면이라서 그런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연기를 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자기 체면으로 극복했다고 했다. “별 거 아닌 걸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오버하지마 고은아’라고 말하는 거죠.(웃음)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더 조급해지고 더 안 되거든요. 아무 일도 아니니까 너무 심각해지지 말라고 저를 추스려요.”

김고은은 올해 다작했다.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시즌2와 ‘작은 아씨들’에 출연했고, 이제 ‘영웅’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영웅’이 코로나 사태 탓에 개봉일이 밀린 영향이 있지만, 한 해 드라마 2편에서 주연을 맡고, 영화까지 내놓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다작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뭐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전 많은 작품에 나오고 싶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전 제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아요. 모든 역할을 다 해보고 싶어요. 맡겨만 주세요.”

아이브 ‘러브 다이브’, 美 타임 선정 ‘올해의 K팝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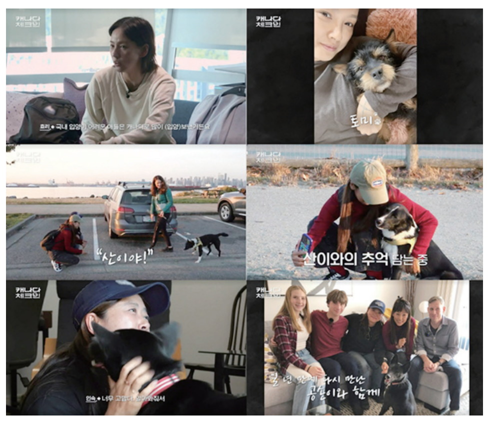
그룹 아이브가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다.

미국 시사 전문지 타임(TIME)이 최근 발표한 2022 ‘베스트 K-팝 노래’ 부문에 아이브의 두 번째 싱글 타이틀곡 ‘러브 다이브’ 이름을 올렸다.

타임지는 ‘러브 다이브’에 대해 “유진이 ‘네가 참 궁금해’라고 노래를 시작하지만, ‘러브 다이브’로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은 아이브다”라고 했다.

이어 “일렉트로 팝 트랙의 첫 순간부터 이서의 섬세한 보컬은 아이브의 풍부한 목소리가 몽환적이며 미끄러지듯이 우리를 더욱 매혹한다”라며 “아이브는 ‘탐험’을 환영하는 신비한 매력에 대해 노래하고,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아이브의 더 많은 매력에 뛰어들 준비를 하게 한다”라고 했다.

아이브는 지난해 12월 데뷔한 6인조 걸그룹이다. 데뷔 일주일 만에 ‘일레븐’으로 국내 음악방송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이브는 오는 31일 일본 연말 음악 프로그램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



이효리 “내 모습 낯설어” ‘캐나다 체크인’ 첫 방송

전국 기준 1.6%의 시청률 기록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출연한 tvN 예능 ‘캐나다 체크인’을 시청한 소감을 전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캐나다 체크인’(연출 김태호·강경미, 작가 최혜정) 1회에서 이효리는 국내 입양이 어려워 캐나다로 입양 보냈던 강아지들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로 향한 이효리의 여정이 그려졌다.

이효리는 “첫 방송 한참 전부터 제작진분들께 방송 언제 볼 수 있냐 물어볼 정도로 궁금했는데 막상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떨렸라. 화면으로 보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라며 “강아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말투가 이렇구나… 처음 알았다”라고 첫 방송 시청 소감을 전했다.

그는 처음으로 해외 입양이 확정된 강아지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해외 이동 봉사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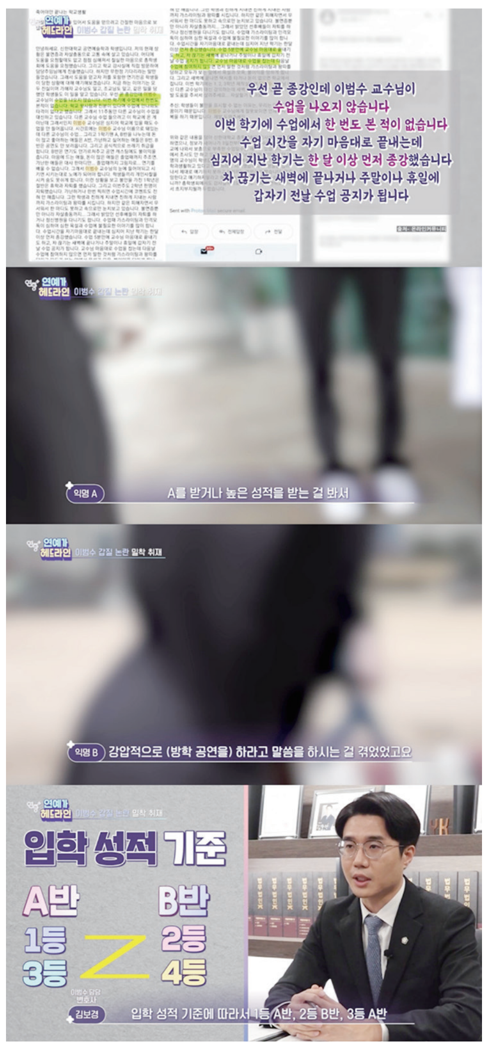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들과 만나는 모습을 본 이효리는 “그동안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케어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이효리가 직접 구조해 입양 가기 전까지 함께했던 강아지 ‘산’이와 재회하는 장면은 코끝 찡한 감동을 자아냈다. “날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잘 사는 것만 확인하고 싶다”는 이효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산이는 이효리에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또한 체크인 메이트 ‘공길 언니’의 손에 구조돼 입양 가기 전까지 2년간을 함께했던 강아지 ‘공손’이와 눈물의 재회도 이뤄졌다. 공길 언니의 목소리에 귀를 젖히며 뛰어와 반응하는 공손이의 행동에 이효리 역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날 ‘캐나다 체크인’ 1회는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범수, 돈내는 공연 강요”…“성실한 학생에 기회 줬다”



KBS ‘연중 플러스’ 갑질 논란 다뤄…인권센터로 넘어가

배우 이범수가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엇갈린 이범수에 대한 또다른 제보가 전해졌다.

15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학부장으로 재직중인 이범수의 갑질 논란에 대해 다뤘다.

지난 달 24일, 한 커뮤니티에서는 신한대학교 재학생이라 밝힌 A씨가 이범수 폭로글을 올렸다. A씨는 “이범수가 수강생들을 빈부에 따라 분반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업을 마음대로 끝냈다. 이러한 차별을 견디지 못한 신입생 중 절반이 휴학 혹은 자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는 ‘연중’ 제작진은 피해 주장 학생과 처음 접촉한 총학생회를 방문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현재 학교 조사 결과로는 A, B반이 소득이 아닌 성적에 의해 분배됐다.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수업을 A반, B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입생 절반이 자퇴를 했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 공연예술과 자체가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충원율이 높다. 4~6월 기준으로 95%가 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이 인권 센터로 넘어갔다. 계속 조사할거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익명의 재학생들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한 학생은 “확실히 어떤 학생은 출석도 제대로 하고 과제도 온전히 제출했는데 F가 나왔다. 반대로 어떤 학생은 과제도 제대로 안내고 출석도 온전히 하지 않았는데 A나 높은 성적을 받는 걸 봤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학생은 “강압적으로 방학공연을 하라고 말하는 걸 겪었다. 협박도 당했다. 돈을 내야 하는 공연이라 어려울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범수가) 학생들이 다 모인 앞에서 ‘금전적으로 부족하냐’, ‘왜 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범수의 입장은 달랐다. 이범수 측 법률 대리인 김보경 변호사는 “입학 성적에 따라서 분포가 되는게 원칙이다. 학생들의 소득 상황을 세부적으로 전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 학생들에 대한 편애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일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편애를 해서 누구를 더 잘해주고 아닌 학생을 억지로 배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학생 외 조교를 향한 갑질 의견을 묻자 김 변호사는 “일을 하다보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일부 조교 트러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로 화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조훈현·이창호 된 이병헌 유아인…‘승부’ 내년 공개

배우 이병헌과 유아인이 주연한 영화 ‘승부’가 내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승부’는 한국 바둑의 천재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의 대결을 그린 작품으로 이병헌이 ‘조훈현’을, 유아인이 ‘이창호’를 연기한다. 연출은 ‘보안관’(2017)을 만든 김형주 감독이 맡았다. 영화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이 조훈현과 이창호가 1990년대 벌인 대국을 담아낸다. 이병헌과 유아인이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승부’는 내년 중 공개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후크 “이승기에게 54억 지급…채무부존재소송 제기”

기존 13억+미지급 29억+이자 12억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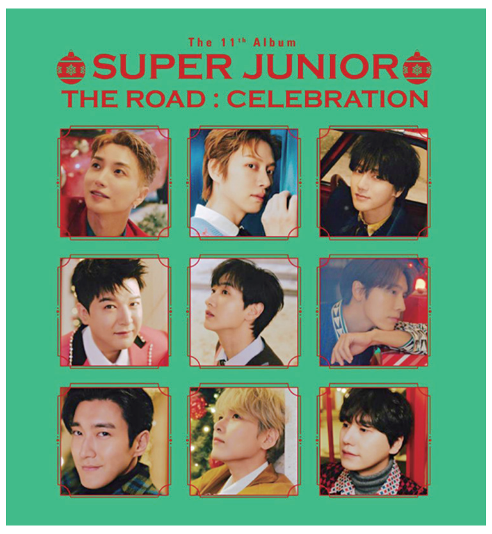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이자를 포함해 음원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다.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후크는 16일 “금주 초까지 관련 자료를 이승기 측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하고자 했다.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정산해야 할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한 이승기씨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았다.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금일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승기씨 관련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았다”며 “이승기씨와 사이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후크는 “이번 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승기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이유를 막론하고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 쌍방 간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상처 받은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근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 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후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 권진영 대표는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승기씨 관련 다툼에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겠다. 내가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승기는 내년 초 JTBC 아이돌 오디션 ‘피크타임’ MC로 복귀할 예정이다.



슈퍼주니어, 21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1위

그룹 '슈퍼주니어'가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다.

16일 소속사 레이블 SJ는 "아이튠즈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정규 11집 앨범 Vol.2 '더 로드 : 셀러브레이션(The Road : Celebration)'은 브라질·인도·대만·일본 등 21개 지역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총 29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서 톱 5, 31개 지역서 톱 10, 애플뮤직에서는 11개 지역 차트인으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